

반전·평화 외치는 축제 한마당

대동제 내일(20일)부터 3일간 ... 반전 문화제 등 진행

2003년 목격대동제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우리 PEACETIVAL'를 기치로 하는 이번 대동제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기존의 틀을 깨고 재미로 가득한 △반미·반전 평화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유영빈(경영4) 총학생회장은 "미국의 이라크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총학생회가 진행하는 주요 행사로는 △20일=개막식 및 노래자랑, 마당극 공연, 특별 강연회, 반미그림전시회(21일까지), 단편영화제 상영(21일까지) △21일=6·15김밥말이, 커피축제, 전통놀이, 스타크래프트 대회 결승 △22일=폐막식, 새내기 농구대회 결승, 화과실꾸미기 경연대회 시상 등이다.

이 가운데 반미 그림전시회와 반미·반전 문화제는 축제를 통해 이



지난 대동제 행사를 즐기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라크 공격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이난희·식자4)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통놀이는 잊혀져 가는 우리 문화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고, 김밥을 6.15m까지 끊어지지 않고 만드는 '6·15김밥말이'는 6·15 공동선언 이행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동제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대동제 행사에 대한 일

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대해 김성호(정보관리4) 대동제 기획단장은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인터넷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려 했으나 참여가 저조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유미·국문2)는 △21일=고추장, 공기게임, 배드민턴, 탁구, 여성영화제, 베틀시장(22일까지) △22일=단체줄넘기, OX퀴즈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유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백지대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여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부 dmz@dongguk.edu

병원개원 준비 본격화될 전망

개원추진본부 발족·건설팅 계획 등

본교가 내년 상반기 불교병원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학교측은 지난 12일 병원개원추진본부(본부장=홍기삼·국어국문학, 이하 추진본부)를 발족해 그동안 개원추진위원회, 동국의료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활동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개원 준비과정을 분석하고 앞으로 개원 준비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유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백지대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여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건설·추진과정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추진본부가 홍기삼 총장을 비롯한 직원 2명으로 구성돼 실무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법인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병원의 정관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직을 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사회에서 정관이 통과된 후 실무 직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병원 건설팅을 위해 2~3곳의 외부업체로부터 프리랜터 컨설팅을 받은 상태이며 다음달 초 업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건설팅은 객관적인 분석과 검증을 통해 개원 후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경영전략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개원준비위는 조사결과 보고를 통해 재정과 사업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경영계획의 부실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윤길 기획심사팀 과장은 "컨설팅 결과가 병원의 개원 방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원 준비의 객관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교는 이번 달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 병원장·실무직원을 선임할 수 있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여 이사회 이후 개원추진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2차 전공결정 신청

불교대 등 4개 단과대 ... 오는 26일부터

2002학년도 2차 전공결정 신청이 오는 26일부터 5일간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다.

신청대상 단과대학은 △불교대 △사과대 △경영대 △생자대로 개설된 전공의 4지망까지 지원 가능하다.

선발인원은 해당학과 정원의 150%에서 1차 선발을 제외한 인원이며 지원자가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1지망자를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2지망으로 옮겨갈 경우 해당전공을 1지망으로 선택한 자가 평점이 낮더라도 우선 배정한다.

한편, 전공 미결정 1차 복학생은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2차 복학생은 오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공배정 결과는 오는 7월 25일 홈페이지 또는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1학기 수시모집 확정

다음달 3일부터 인터넷 통해 접수 가능

200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1학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다음달 3일부터 6일 간 인터넷을 통해 실시된다.

재수생도 접수 가능한 이번 모집은 △일반우수자=235명 △LST(Leadership Special Talent)=25명 △연기재능우수자=3명을 선발하며 지난해 1학기 때 모집했던 불교계 추천전형은 2학기 수시모집으로 변경된다.

이중 올해 처음 실시하는 LST전형은 학생간부 경력과 문화·예술·체육부문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생물학과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전자공학과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각각 5명을 선발한다.

연기재능우수자전형은 국내·외 △연극 △영화 △TV 관련분야 대회에서 개인상을 수상한 학생을 대

상으로 하며 연극영상학부 지원만 가능하다.

또한 일반우수자전형은 담임추천전형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1단계=논술 100% △2단계=1단계 성적 50%와 지정교과성적 40%, 면접 10% 점수를 합산해 선발한다.

지정교과목은 인문계의 경우 △영어 △국어 △사회 교과영역 전과목이며 자연계는 △영어 △수학 △과학 교과영역 전과목이다.

접수는 본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와 http://www.uway.com을 통해 100%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2학기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9월 실시될 예정이다.

2면 대동제 일정



마음은 하나 ...

총학생회가 지난 16일 평양기계공업대학과 같은 시각 각각 서울·평양에서 공동집회를 열었다. 남북 학생들의 사교회를 통해 이뤄진 이번 공동집회에서 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이행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했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현각스님 초청 특별강연

현각스님 초청 특별강연이 오는 20일 오후 5시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명사초청 특강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상보관계의 종교'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현각스님은 미국 뉴저지 출신으로 하버드대학원 종교학과를 졸업했으며 91년 출가해 현재 현정사 주지이다. 저서로는 '만행-하버드에서 화제사까지' 등이 있다.

내일(20일) 수계식 열려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내일(20일) 오후 4시 수계식을 진행한다. 이날 수계는 현성 큰스님이 수계

사로 참석하며 수계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800명의 교직원·학생·일반인이 수계를 받는다.

이번 수계식은 본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학술문화연수 참가 신청

일본 삿포로학원대학

일본 삿포로대학 단기 학술 문화연수생 신청이 오는 28일까지 국제교류실에서 진행된다.

연수는 오는 9월 22일부터 1주일 동안 진행되며 △홀스테이 △정규 수업 참가 △명소견학 등 문화탐방을 하게된다.

선발인원은 10명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서와 재학·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원면적
▲ 한학회 (신림지원2)
- 이상 5월 19일자

보리수

1866년 "9명의 선교사가 죽었으나 9천명의 조선인을 죽이겠다"는 선전포고로 시작된 프랑스의 조선정벌은 7척의 '노질도 안 하는 연기 나는 산같은 배'와 1천 여명의 군대, 그리고 안내를 맡은 3명의 조선인 천주교 신자로 조직됐다.

물지도, 지금의 작약도에 동지를 틀은 이들은 저항다운 전투도 없이 2개월 동안 강화 일대를 점령하고 345권의 귀중 도서, 19상자의 은괴(당시 시가 3만 9천불)를 약탈하고, 6백 여명의 조선인을 살해하였으며 1천 여권의 고서를 불태웠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몰래 초지진을 넘어 전등사에 동지를 틀 연천수장군의 군대 5백 여명에 의해 6명의 사망자와 60여명의 부상자를 내고 패퇴함으로써 끝을 맺는다. 우리 측 전사자는 1명, 부상자는 4명뿐인 혁혁한 전과로 조총과 활이 신식 무기를 물리친 사례가 되어 그 전과는 오늘날 사관학교의 귀감이 되고 있다.

양장군을 기리는 승전비가 전등사로 들어가는 정족산성 동문 안쪽에 있다. 수많은 사람이 이곳을 지나지만 넓고 작은 비각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별로 없다. 최초로 서양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양장군의 전과도 우 가치 있는 것이지만, 외세를 물리쳐야 한다는 강력한 척화파의 신념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었다는 것도 소중하다. 외세를 이겨보지 못한 조선의 슬픈 운명에 비할 때 말이다.

그 이후 계속된 미국의 침략, 일본의 간계로 우리는 개항이라는 미명 아래 강대국의 칼바람에 휩쓸리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지금

발전기금 060-700-0119

나는 지금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으로 간다

전국고교생 제41회 문학콩쿠르

1. 응모부문 및 제출원수
 * 시·시조 : 2편 ~ 3편
 * 소설 : 1편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 수필 : 1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 응모 및 심사
 주제에 상관없이 본인의 순수 창작 작품을 우편으로 응모하면 심사를 거쳐 본선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여 학교로 통보합니다. 본선 참가자는 6월 14일(토) 10시 본교에서 열리는 백일장에서 주어진 주제로 작품을 작성하여 양면용지를 펼치게 됩니다.

3. 시상
 각 부문별로 장원 1명, 차상 1명, 차하 2명에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하며,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지급 예정입니다. 당선시에는 본교로 작품권이 귀속됩니다.

4. 장학금 지급
 * 장원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2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차상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1년

간 등록금의 30% 면제
 * 3위(차하) 이내 입상자는 본교 입학시험에 문학특기자 응시자격 부여
 * 본교 재학 중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졸업시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5. 작품제출기간
 2003년 5월 5일 ~ 5월 21일까지
 (당일 도착분에 한함, 직접접수 가능)

6. 작품제출처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및 동대신문사

7. 주의사항
 응모작품은 원고지나 A4용지에만 작성하고,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mail 과 Fax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http://www.dguil.net)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02) 2260-8773
 동대신문사 (02) 2260-3491~2

지면안내

7면 **한민족의 아리랑**

남북의 문화적 연결고리인 아리랑. 그 역할과 의의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4면 **'80년 5월' 이 내게 말하길**

5·18세대의 가슴 독백을 통해 5월 정신의 현재성을 살펴본다.

6면 **학과제 회귀 지상논쟁**

학과제 회귀에 대한 학내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교육과정 개편 논의 진행될 듯

각 단과대 자체적 논의·설문조사 실시 ... 오는 28일 공개토론회

2004학년도부터 일부 단과대의 모집단위가 학과제로 변경됨에 따라 각 단과대별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교무처(처장=김무봉·국어국문학) 학사지원실은 학과제를 실시하는 단과대의 교육과정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제 변경에 따른 적절한 전공학점 등에 대해 묻는 교육여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사행정 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과제를 시행하는 단과대 내에서도 교육과정 개편과 최소 전공이수학점 변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호일(독일학) 문과대학장은 "이번주 중으로 단과대 내 구조개선 소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회장=유영빈·경영4)는 학과제 변경에 따른 △교과과정 개편 △학점포기제 △절대평가제 등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만족도 △학부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28일 학교측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좋은수업 만들기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는 학과제 변경에 대한 학교와 학생측의 입장을 공론화하는 첫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입시에서 학과제 시행이 유보된 단과대 역시 2005학년도 또는 그 다음에 시행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사과대와 경영대 학생회는

"변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교측이 제시한 근거가 미흡하며 일방적 결정"이라며 다음해부터 학과제 시행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중연(사회4) 사과대 부학생회장은 "비인기학과와 정원미달문제는 비단 학과제 시행에 따른 것만이 아니며 학년마다 단계적으로 졸업이수학점을 늘리면 크게 우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과대와 경영대 학생회는 이번주 중으로 본관 항의방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학교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2학기 우수장학금 신청

오늘(19일)부터 30일까지 학업지도 교수에게

2003학년도 2학기 우수장학금 신청이 오늘(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우수장학금은 17학점 이상(불교대·경영대 15학점)을 이수한 학생 중 평균 평점 3.0이상인 재학생이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의 30%를 감면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재산

세 증명서와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학업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참사랑봉사단에서 활동한 학생인 경우 확인서 없이도 봉사활동이 인정된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60% △가정형편 20% △사회봉사 10% △학업지도교수평가 10%이다.

김강자 총경 초청 강연회

'왜곡된 성문화·산업 실태'

김강자 총경 초청 강연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학림관 소강당에서 진행된다.

'왜곡된 성문화와 성산업의 실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에서 김 총경은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여성의 성상품화와 관련된 문화 산업에 대해 강연한다.

이번 특강은 명사초청특강의 하나로 성의식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학생실의 한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해결방법보다 예방교육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 이번 특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8회 문화예술제 개최

문화예술대학원이 개교 97주년을 맞아 오늘(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8회 동국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대학원은 오늘 오후 7시 30분부터 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홍예수건춤 △무지컬 '카바레' △관소리 '수궁가' 등의

공연을 진행하며, 오는 23일까지 동국갤러리에서 △시화 △도자기 등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와 관련해 문화예술대학원의 한 관계자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상 전국대학 응원대제전 중앙대 등 타대학 출전

제22회 백상 전국대학 응원대제전이 오는 21일 오후 6시 수영장에서 열린다.

백상응원단이 주최하는 이번 응원대제전은 백상응원단의 공연을 비롯해 건국대와 중앙대 등 4개 대학의 응원전과 치어리더 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연예인 축하공연에는 M.C. The Max와 린, 김재욱이 출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권범근(화2) 백상응원단장은 "학생들의 응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춘계명찰순례 접수 속리산 법주사에서 진행

제19회 춘계명찰순례 접수가 내일(20일)부터 28일까지 본관 3층 학생복지실에서 실시된다.

이번 순례는 오는 30일부터 1박 2일 간 속리산 법주사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45명까지 접수 가능하다.

등록금 인상차액 2% 환불

오는 28일부터 3일간 제일은행 계좌 통해

2003학년도 1학기 등록금 인상차액 환불이 오는 28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환불 금액은 납입금액의 2%로 학생증과 연계된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제일은행 계좌가 없거나 변경된 학생은 오늘(19일)부터 23일까지 각 단과대 교학과에 신청하면 된다.

환불기간동안 돌려 받지 못한 학생은 해당 단과대 교학과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재무회계팀 한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이 10%에서 8%로 인하됨에 따라 환불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취업적성검사 해석강좌 IT종합적성검사도 무료실시

지난 14, 15일에 실시된 취업대비 적무적성검사 해석강좌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국관 L401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검사 실시기관 상담원이 결과에 대해 해석하는 것이며 이날 참석할 경우 IT종합적성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받지 못한 학생은 오는 23일부터 학생상담센터에서 별도 검사 가능하다.



유증 투쟁(?) ... 한총련 수배해제를 위한 '모의 감옥농성'이 지난 15일부터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교 정치수배자 모임 주최로 진행된 이번 농성은 한총련 정치수배가 풀릴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김진성기자jyearn@dongguk.edu

단과대 대동제 일정

사회의식과 문화제 결합된 대동의 장

대학가 최대의 축제 대동제가 오는 20일 막을 올린다.

이번 대동제는 '우리 Peacetival'을 모토로 정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반미·평화를 축제를 통해 이슈화할 예정이다.

반미 그림전시회와 폐막식에 진행되는 통일문화한마당, 반미반전 문화제는 이를 반영해 기획한 행사들이다.

그러나 대동제 기획단은 내용

뿐만 아니라 대중성과 재미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장하나 씨의 '성과 과학' 강연, 6·15김밥 맞이, 커피최강전 등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혼례를 통해 우리 문화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학과실 꾸미기 대회·새내기 농구대회를 통해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도 준비했다.

이외에도 광고학과와 커피영상 메시지, 이과대의 문자 빨리 보내기 대회는 요즘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게임과 접목시켜 눈에 띈다.

그러나 이번 대동제 역시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보다 뽕푼선 터트리기 등 매년 해오던 행사들이 진행돼 아쉬움을 남긴다.

특히 올해 역시 20여 개의 주점이 열릴 예정이어서 "대동제

가 주점 위주로 진행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론회·강연회 등 학술행사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성공한' 축제는 행사의 프로그램과 함께 구성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렸다고 과언이 아니다.

오는 20일부터 3일간은 동국인이 하나되는 큰 장이 되길 기대해본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총학생회

△20일
· 마당극 오후 12시 통일광장
· 특별강연회 장하나 씨의 '성과 과학' 오후6시30분 동국관 L501

· 개막식 및 노래자랑 오후 6시 만해광장
△21일
· 6·15김밥맞이 오후 12시 불상 앞

· 전통혼례 오후 1시 불상 앞
· 커피최강전 오후 5시 30분 통일광장
· 스타크래프트 대회 결승리그 통일광장

△20, 21일
· 반미그림전시회 동아로
· 단편영화제 중도 앞

△22일
· 폐막식(1부 통일문화한마당, 2부 반미반전문화제, 3부 시상식)
· 학과실꾸미기 경연대회 시상
· 새내기 농구대회 결승 만해광장

불교대

△20, 21일
· 밥집(불교학과) 점심·저녁식사 판매 우체국 앞

문과대

△주점(20, 21일)

이과대

△20일
· 문자빨리보내기대회 오전 11시·오후 1시

· 커피게임 오후 2시 △21일

· 노예팅 오후 1시
· 고무줄 놀이 오후 3시 △22일

· 립보게임 오후 12시
· 과대학 요리대회 오후 1시
· 팔씨름대회 오후 3시
· 로또 추첨 오후 5시

△20~22일
· 물풍선터뜨리기, 과일꼬치 판매, 로또(축소판) 판매 오후 1시 △주점(20, 21일)

이상 장소는 명진관 앞

법과대

△21일

· 법대가요제 오후 6시 동국관 L동 앞

△주점(20, 21일) 통일광장

사회과학대

△20일

· 해오름식 오후 6시 통일광장 △20, 21일

· 야외카페 오후 1시

· 체육놀이마당 오후 2시

· 사진전 △주점(20, 21일)

· 동국관 나체발 위 주차장

경영대

△경영학과
· 21, 22일=요구르트 빨리먹기 대회, 물풍선터뜨리기 동국관 앞

· 22일=캠퍼스 M.T

△광고학과
· 20~22일=광고영상물 상영, 커피영상메시지, 미니 농구대회, 광고과 작품전시회 통일광장

△주점(20, 21일) 혜화관 앞

생자대

△주점(20, 21일)

공과대

△20일

· 요구르트 대회 오후 7시

· 빼빼로 대회 오후 9시 △21일

· 노래자랑 △주점(20, 21일)

이상 장소는 원흥관 앞

정보산업대

△21일

· 볼물찾기 오후 6시 정보문화관 △20, 21일

· 생과일주스 판매

· 담배이름 맞추기 오후 1시 △주점(20, 21일)

사범대

△수배자 카페

· 비디오아트 상영전 문화관 로비

△이벤트주점(알까기대회 개최 21, 22일)

아간강좌 총학생회

△21일

· 소모임 공연 오후 7시 통일광장

△주점(20, 21일)

총여학생회

△21일

· 고무줄, 공기게임, 벼룩시장 오후 12시 불상 앞

· 배드민턴 탁구 오후 5시 만해광장

· 여성영화제 오후 6시 30분 문화관 3세미나실

△22일

· 단체출발기, OX퀴즈, 벼룩시장 오후 12시 불상 앞

동아리

△라 페스티벌(피어리스 던, 음샘, 이수라 등 참가)

=21일 오후 2시 만해광장

△마술동아리 MASIC 공연 =21일 오후 6시

문화관 1세미나실

△디디돌 영화제=20일~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학림관 소강당

△동그라미 사진전=20~22일 팔정도

△동국문화회 불 시, 소설전 =20~22일 팔정도

△통계조사연구회 전시회 =20, 21일 불상 주변

기업 채용설명회

롯데그룹을 비롯한 3개 기업의 채용 설명회가 진행된다.

△롯데그룹 채용설명회
일시: 20일, 오후2시~오후4시
장소: 덕암세미나실

△롯데그룹 채용상담
일시: 19일부터 22일까지 오전10시~오후5시
장소: 다량관 세미나실

△삼성화재 채용상담
일시: 21일, 오전10시~오후5시
장소: 취업지원팀

대상: 상경·법정·인문·수리 통계·이공계로 2003년 8월 졸업예정자

△현대·기아자동차 채용상담회
일시: 22일, 오전10시~오후5시
장소: 취업지원팀

대상: 전자·전기·기계과 2003년 8월 졸업예정자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실시

- 취 지**
가. 강의에 대한 합리적 분석 및 평가결과 환류(feedback)를 통하여 강의의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부문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교원업적평가 및 기관평가 시 교육부문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자료를 산출하기 위함.
- 시행시기** 2003. 6. 2(월) ~ 6. 15(일) 중.
- 대 상** 2003학년도 1학기 개설 전체 강좌.
- 응답자격** 200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체.
- 응답요령**
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에 접속 후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 클릭.
나.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강좌를 선택하고 주어진 문항의 해당사항을 선택다. 문항 건의사항란에는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공지 사항**
가. 학생이 응답한 의견은 보다 나은 강의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응답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니 진지하고 성실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나. 무성의한 답변(5점척도 중 일렬로 5회 이상 답변)은 피하기 바라며, 건의사항란에는 5점척도 답변이 관련한 사항 등을 서술하기 바랍니다.
다. 학생은 자신이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설문응답을 하기 바랍니다.
라. 설문 응답률 제고를 위하여 수강 강좌의 1/2이상 질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는 인터넷 및 본교 전산망에서 성적공시 조회를 제한합니다.

교무처

말 많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네이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나 교육부는 편리함과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네이스 수정을 망설이고 있다. 교무·학사, 보건, 전·입학 등 3개 핵심 영역을 제외해야 한다면 네이스는 '흑사리 껌데기'가 될 것이다.

물론 주저주저하는 것에는 일리가 있다. 이 엄청난 괴물을 이제 와서 어떻게 폐기한다는 말인가. 애당초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 시스템이다.



논단

권혁범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네이스가 잘못된 이유

는 세상에 과연 100% 안전이 보장될까. 만약 개인의 성적, 교내생활, 병력과 신체 상태를 담은 내용이 외부로 노출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 정작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왜 다양한 학생들의 정보를 획일적으로 단 한가지 유형의 프로그램 양식에 입력해야 할까. 왜 그렇게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까.

그것 자체가 이미 파시스트적 폭력이다.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기록은 어떤 컴퓨터 양식에 의해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미 교사의 복잡한 머릿속에 복잡하고 애매한 상태로 들어가 있고 그것은 교사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특수하고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진단하고 도움을 주는 공

간은 작고 구체적인 공간일 수밖에 없다.

네이스가 학생들의 지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교사들이 그 천편일률적인 컴퓨터 양식에 맞추어 학생들의 신상을 입력하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일이며 그 행위자체는 학생들에게 이미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강제하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다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일을 기꺼이 하란 말인가. 인권 침해적이고 짜증나고 획일적인 서류 입력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물론 현재 임시교육자체가 획일적이고 비민주적이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한 말씀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네이스로 더 악화시켜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경험과 이해를 넘어서는 먼 거리부터의 지도와 교육은 학생들을 추상

화, 표준화함으로써 학생들과 교사의 주체성을 박탈한다. 그리고 그 표준에서 벗어나는 학생들은 '비정상'으로 타자화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크고 작은 다양하고 개성적인 학교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커리큘럼과 교사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학교 공간을 연결하여 전국을 균질적인 사이버 시스템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전체주의적 발상 자체가 끔찍하다. 그것에 별다른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교육부 관료나 담당자들의 의식이 무섭다.

다양성 살리는 '정보화'로

물론 정보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생 및 교사들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미로, 선택의 가짓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정한 방식의 정보화를 교사와 학생에게 강제해서는 안된다. 차라리 그 돈으로 수 만명 교사들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후원해야 한다. 월급을 올리고 더 많은 교사를 뽑아 잡무를 줄여주고, 학생들 개개인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동시에 50년대 식 중·고교 교실 개량하는 게 훨씬 더 긴요한 일 아닌가. 네이스에 이미 들어간 돈, 참으로 아깝다.

사설

참된 대동의 장 되려면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대학 최고의 축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불과 20여년 전인 7, 80년대. 대학축제는 암울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이 담아왔던 좌절과 분노를 밖으로 배출하는 '분출구' 역할을 했다. 대동제가 남성과 여성을 과도하게 갈라놓는 유교적 의식이나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절로 '하나'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대학축제는 이와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암울한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 듯 한 '화염병 멀리 던지기 대회'가 웃고 즐기는 '불풍선 던지기'로 변모했다. 사회 부조리에 대해 '투쟁하는 공간'으로서의 축제가 아닌 '즐기기 위한 문화제'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동제는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따라잡지 못했다. 매년 하나의 테마를 갖고 행사를 준비하긴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OOO풍선벨을 울려라' 등의 TV 프로그램을 흉내낸 정형화된 행사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즐기는 행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학생만의 참신성이 결여된 반복되는 행사를 학생들이 외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끌기 위해 열린 행사 역시 'OOO빨리 먹기 대회' 등 축제 기획 당시의 기초와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진행돼 테마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채 대동제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학생회는 이번 대동제의 기조를 '우리 peacetival'로 정하고 학내 구성원이 하나 되는 분위기 속에 반미·반전 평화를 외치는 축제의 장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단편영화제, 스타크래프트 경연대회, 6·15김밥말이 행사 등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고 반미그립전시회, 반미·반전 문화제, 전통혼례 등의 행사를 통해 정전과 미국, '우리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재미와 사회적 문제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들이 학생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인지, 반미·반전이라는 테마를 위한 '의미 있는' 행사인지에 대한 여부는 축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내 최고의 문화제로 변화한 대동제, 본교 대동제가 진정한 '대동의 장'으로 꾸며지기 위해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테마를 위한 의미있는 행사로 꾸며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교수 성폭력 사건을 돌아본다

'침묵의 카르텔' 깨고 해결의지 모아야

최근 서울시립대 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다시금 대학사회 교수 성폭력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립대 국문과 J교수는 지난 1월, 한 여학생을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성추행 했고, 이에 피해학생과 학생회는 긴급 대책위원회를 구성, 사건을 공론에 부쳤다. 그러던 과정에서 7, 8명의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 파문은 더욱 커졌다. 학생회는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교수 자진사퇴 서명운동'을 벌여 약 40%학생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가해자인 J교수는 성추행 자체를 부인,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으며 "악의적 음해를 계속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교측도 현재까지 실태조사조차 취하지 않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 교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대, 한국교원대의 경우도 비슷하다. 서울대의 경우, 간호사 등 수술장 구성원 100여명이 서명을 통해 몇 년 간 신체·언어적으로 성희롱했던 L교수에 대해 해임과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공론화 됐다. 2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L교수의 의사 겸직은 해제됐지만 아직까지 해임 요구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대학원생을 성희롱을 한 한국교원대의 L교수 사건 역시 퇴진 요구와 수업거부 등 학생회 측의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무성의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교수 성폭력 사건은 공론화 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문제 해결도 쉽게 이뤄지지 못하는 게 다반사다. 이는 지난 2000년 사건이 일어난 이후 현재까지도 완전히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서강대, 경희대 그리고 본교 성폭력 사건의 경우를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교수 성폭력 사건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대학사회에는 '힘있는' 가해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일어났던 교수 성폭력 사건이 유사한 상황과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인 셈이다.

교수라는 사회적 권위를 갖고 있는 '힘있는'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해사실을 공론화 한 학생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에 더해 대학사회 내에 팽배한 '침묵의 카르텔'은 피해학생에

게 또 다른 가해행위로 작용하고 있다. 교수들의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감추거나 감싸주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현실이 그렇다.

최근 'K교수 성추행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내는 등 다시 주목하고 있는 본교 K교수 사건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3년여에 걸친 긴 싸움을 하는 동안 피해학생의 상처는 커지고 있음에도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잊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으로써 사건이 잊혀져 가는 대부분의 '수순'은 또다른 교수 성폭력 사건을 낳는 원인이자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각적인 대응과 처벌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반성폭력 학칙의 실효성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몇 년 째 끊이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대학사회의 교수 성폭력 문제. 제도적 노력은 물론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K교수 사건 일지

- ▲2000년 7월 K교수가 본교 사회학과를 수학했던 일본인 유학생 M양을 성추행
- ▲2000년 8월~9월 학부·대학원 총회, 학교측과의 면담 통한 사건 공론화
- ▲2000년 10월 학교측, K교수 해임
- ▲2000년 12월 K교수,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재심 위원회에 해임징계 무효확인 청구 제기
- ▲2001년 6월 교심위, K교수에 대한 해임징계 정지 1개월로 감면, K교수 복직
- ▲2002년 3월 2002년 1학기 K교수 교과목 수업거부로 모두 폐강 피해자, K교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냄
- ▲2002년 6월 K교수, 피해자와 사회학과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 ▲2002년 11월 사회학과장 명예훼손 무혐의 확정
- ▲2003년 현재까지 2003학년도 1학기 K교수 교과목 모두 폐강 피해자, 민사소송 진행 중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 | | | |
|----------|-----|-----------|-------------------------------|
| 발행인 | 홍기삼 | 인터넷 동대신문 | http://dgupress.dongguk.ac.kr |
| 편집인 겸 주간 | 이상영 | 인터넷 동국대학교 | http://www.dongguk.edu |
| 부주장 | 구본철 | 구독문의 :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
| 편집국장 | 류변성 | | |
| 편집장 | 한보라 | | |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17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88 팩스 (054)770-2067

동약로

건너뛰기



“학내구성원 모두가 생활협동조합의 주인입니다.”

본교 생활협동조합(이사장=유덕기·생명자원유통산업학, 이하 생활협)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다.

‘주인’이라는 단어는 조합원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생활의 제반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생활협은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 결정만으로 예산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올해 예산이 학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대의원총회의 승인 없이 집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의원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는

“올해 학부이사가 늦게 선임돼 2002년 결산감사가 지연됐고, 그때문에 예산안 확정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 감사들은 별도로 구성돼 있어 학부이사 유·무는 감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산안 확정 감사가 끝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에 비교하면 뒤늦게라도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올해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에는 대의원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예산을 집행했으며 전년도 감사 또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2년 11월 독립법인 출범 해산·창립총회 때 예산안을 함께 통과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대의원총회를 열지 못하는데 대해 이사회 측은 그 해 독립법인출범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난해 이사들이 애초에 총회를 열 것으로 계획했던 11월에 그 해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결국 이사들과 행정담당자들의 안일함과 책임감 부족으로 인해 일어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주·민주적 운영을 위해 독립법인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활협. 그러나 이사회를 비롯한 생활 내부의 각성 없이 독립법인만 출범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유석 기자 kauri21@dongguk.edu



5.18 가상편지

80년 5월의 ‘나’가 당신에게 보냅니다



신군부 세력의 정권찬탈에 항거한 5.18 광주민중항쟁이 올해로 23주기를 맞았다. 1980년 5월의 광주의 시민들은 결국 잔혹하게 진압되었지만 미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반미의식’을 본격적으로 싹틔운 것은 커다란 변화다. 이에 80년 5월을 겪은 이들을 ‘나’라는 화자로 칭하고, 이들이 보낸 가상편지를 통해 ‘5월 정신’의 현재적 의미를 알아본다.

편집자

‘탕탕탕’ 갑자기 공수대가 총을 난사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뛰어가는데 다리가 좀 이상했다. 감각이 없었다. 총에 맞은 것이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 보았지만 이미 내 옷과 살은 찢어져 있었고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을 내놓고 ‘욕’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그렇게 했던 몇몇 사람들은 모두 4.3항쟁, 통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 남민전 사건때문에 간첩으로 몰려 다른 나라로 쫓겨나거나 하늘나라에 가야했으니까요.

는 죽지 않았어,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어...” ...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손수건이 어머니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손수건이 언제 얼마를 떠날지 모릅니다. 긴 세월, 아니 영원히 가슴에 묻을 것 같습니다.

미국을 ‘목격’하다

당시 24살이었던 남 모씨. 그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같은 해 6월에 모두 5.18민중항쟁의 총격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그는 엄청난 휴유증에 시달리며 변변한 직업 없이 단칸방을 전전하고 있지요. 하지만 걸로 보기에 그저 ‘가난한 아줌마’일 뿐이에요. 우리나라에 어디 ‘사연’ 없이 사는 사람 있나요. 평범한 그녀, 바로 ‘나’입니다.

그러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22일 일어난 일이었지요. 광주가 ‘해방’된지 이틀째 되던 22일, 투사회보 7호에 큼지막하게 쓰인 “미군,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다”라는 글귀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미국이 일본에 정박 중이던 항공모함을 동해에 출동시킨 걸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평범한 시민들은 물론 투사회보를 만들며 시위를 주도하던 이들과도 미국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 거라 믿었던 겁니다.

여중생장갑차사건 관련사진을 찍어온 어느 사진작가의 책, ‘어머니와 손수건’의 일부입니다.

어머니의 딸은 지난해 6월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매일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물로 살지만, 걸으로는 그저 가난한 ‘아줌마’일 뿐이에요. 우리나라에 어디 사연 없는 사람 있나요. 하지만, 사연이 있는 이들이 많아서 5.18 광주민중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손수건을 든 ‘그녀’ 역시 ‘나’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아직은 ‘나’입니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전두환 전 대통령의 쿠데타 사실을 알고 18일 아침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대 앞에 모여들었던 학생들. 움직이는 것은 다 싸버리는 군인들에게 돌멩이를 들고 울부짖었던 사람. 다는 ‘뽀는 게’ 없어 도청 앞에서 “공주만세”라고 외치다가 총알에 피륙 쓰러져간 사람도 모두 ‘나’랍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작전통제권은 완벽히 미국에게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 계엄군이었던 20사단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총사령관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항공모함은 무력진압을 위한 지원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007 영화 시리즈 중 ‘살인면허’ 편이 있는데 주한미군사령관의 공수부대 파견승인을 ‘살인면허’ 발급에 비유하는 이들도 많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진행된 촛불시위.

잠깐, 5.18을 겪은 이들의 뒷구멍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2003년 5월을 살아가는 당신은 또 다른 5.18항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지요.

‘반미’가 태어난 5.18

반미. 2002년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단어’가 반미라더군요. 그런데 혹시 반미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처음 쓰이게 된 때가 5.18 민중항쟁 시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진정한 과거청산은

5.18 광주민중항쟁은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들이 법정에서 서면서 그나마 다른 현대사 사건들에 비해 과거청산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받지만, 미군의 책임만은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당당하다는 새 세대가 이 걸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집을 나섭니다. 미군 장갑차에 깔린 딸을 만나러 갑니다. 울지 않았던 다짐은 문밖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나 못 가. 호수이



한총련 합법화, 어디까지 왔나

일주일 동인의 한총련 합법화 뉴스를 종합해 씁니다. 편집자

대법원 “한총련 이적성 여전”

각 시민단체 반대성명... 합법화 논의 주춤

이적규정의 법적 판단권한을 가진 대법원이 한총련의 이적성을 재확정해 합법화 논의가 주춤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각각 합법화 의지를 표명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논의에 혼란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10기 김형주(전남대 02년 총학생회장) 의장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 2년 징역을 확정 판결 했다. 다음날 제10기 윤경희(홍익대 02년 총학생회장) 대법인도 하급심원칙에 따라 실형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다.

각계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총련을 비롯한 각 사회 인권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대성명을 냈는가 하면 한나라당은 환영성명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대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논평하는 사실을 실은 것이다.

먼저 한총련은 성명을 통해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이 한총련의 강령 개정 등을 ‘합법화를 위한 조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한총련의 내부 개혁노력을 합법화를 위한 ‘전술’로 폄하했다”며 적극 반발하는 모습이다. ‘결모습만 교묘히 바꾸려는 전략’이라는 일부 비판에 정면대응한 것이다.

정치수배해제 모임(이하 수배해제모임)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유명업 씨는 “이번 판결을 내린 법관들은 그동안 한총련에 이적단체 판결을 내려온 이들이었기 때문에 애초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합법화 여론이 강제력을 갖지 못한 데에 아쉬워했다. 그는 “합법화 여론이 우세하다는 사실을 ‘열린’ 형식으로 진행될 한총련 출범식에서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합법화 공감대를 계속 넓혀 법적 장애를 넘겠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한총련 출범식까지 약 10여일. 그동안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첫 소환장은 보통 5월 한총련 출범식 직후 발부됐다. 만약 11기 한총련 대의원까지 소환장을 받게 되면 올해 한총련 합법화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수배자도 4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총련 출범식 전까지 법무부와 검·경찰의 가시적인 논의결과가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5월 축전’ 관련 기자회견

새 학생운동의 출발로

오는 30일부터 치러지는 한총련 출범식이 새로운 학생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총련은 지난 13일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5월 축전 및 공동출범식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5월 축전은 300만 대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아내는 대중적인 행사가 풍성하게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의하면 ‘젊음, 광장에 서다’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은 △상설적 공동투쟁체 발족식 △학생운동단체간 공동출범식 △합법 한총련 기원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플래시 △홈페이지 △디가 경연대회와 5월 축전 홈페이지(www.5festival.net)를 통해 기획한 공모사업을 진행해 온라인을 통한 학생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03학년도 1학기 등록금 인상차액 환불 안내 (서울 캠퍼스)

- 환불대상** : 2003학년도 1학기분 등록금 납부자
- 환불방법** : 개인 은행계좌로 일괄 입금
- 입금 계좌번호**
 - 가. 학생증과 연계된 제일은행 계좌를 기본 입금계좌로 함. (제일은행 동대출장소에서 본인 계좌번호 확인 가능 ☎ 02) 2260-8507, 8508)
 - 나. 입금계좌 변경 및 추가 신청 : 소속 단과대 교학과
 - 학부생 : 소속 단과대 교학과
 - 대학원생 : 각 대학원 교학과
 - 다. 계좌 변경 및 추가 신청 기간 : 5월 19일 (월) ~ 5월 23일 (금)
- 환불기간** : 5월 28일 (수) ~ 5월 30일 (금)

총무처

제19회 춘계명찰순례개최

- 순례일자** : 2003. 5. 30(금) ~ 5. 31(토) (1박2일)
- 순례장소**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범주사
- 참가대상** : 전 동국인(45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 참가비** : 오전원(W5,000)
- 접수기간** : 2003. 5. 20(화) ~ 5. 28(수)
- 접수처** : 본관 학복지실 (☎2260-3048)
- 출발일시 및 장소** : 2003. 5. 30(금) 오후4시, 경각원 앞

학생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200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대상자** : 200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03학년도 8월 졸업) 중 사범대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자격**
 - 가.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 나. 사범대학생: 교직과목 22학점, 전공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
 - 다. 비사범계 학생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로, 교직과목 및 전체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
- 접수기간** : 2003. 6. 9(월) ~ 6. 13(금)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 교부 및 접수처**
 - 가. 사범대학생 : 소속 학과 사무실
 - 나. 비사범계 학생 : 사범대학 교학과
 - *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교직원내 게시판에 출력 가능함.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대상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2003학년도 2차 전공결정 시행

- 신청대상**
 - 가. 2003학년도 2학년 1학기 재학생 및 2학년 2학기 복학생으로서 전공 미결정자
 - 나. 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생명자원과학대학 2002학년도 1차 전공 배정자 중 전공변경 희망자
- 일정**
 - 가. 전공 배정 신청기간
 - 2학년 재학생 : 2003. 5. 26(월) ~ 5. 30(금)
 - 2학년 2학기 1차 복학생 : 2003. 6. 9(월) - 6. 11(수) (1차 복학시기)
 - 2학년 2학기 2차 복학생 : 2003. 8. 18(월) - 8. 20(수) (2차 복학시기)
 - 나. 전공배정 최종 결정 및 확정공고
 - 2학년 재학생 및 2학년 2학기 1차 복학생 : 2003. 8. (금) 한 *대학원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 2학년 2학기 2차 복학생 : 2003. 8. 29(금) 한
- 배정기준**
 - 가.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성적과 계절학기 성적을 통산한 누계 평점평균을 비교 적용한다.
 - 나. 단, 다음의 경우는 3개학기 이수자와 성적 경제시 3개학기 이수자의 하위에 둔다.
 - 2개학기 이수자(조기복학자)
 - 3개학기 이수자중 1학년 수료학점에 미달하는 자
 - 1학년 수료학점(2002학번 기준) : 35학점 (단, 불교대, 경영대, 사회과학대는 30학점)
- 복학생의 전공결정**
 - 가. 기본원칙
 - 복학생은 입학당시 소속된 모집단위내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단, 모집단위가 세분화되어 소속 변경된 경우 변경한 학부 소속 전공만 지원 가능하다.
 - 나. 배정기준
 - 일반 재학생과 동일한 배정기준을 적용한다.(3. 배정기준 참조) 단, 2차 복학자의 성적이 2003학년도 2차 전공결정시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 (재학생+1차 복학자)의 cut-line 보다 높을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희망 전공에 배정한다.
- 동점자 처리기준**
 - 가. 제1기준 : 개인별 누계 평점평균을 소속된 셋째자리까지 비교한다.
 - 나. 제2기준 :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중에서 총 취득학점이 많은자가 우선한다.
 - 다. 제2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동 순위로 처리한다.
- 전공결정 신청방법**
 - 가. 2학년 재학생 : 인터넷 신청(학교 홈페이지)
 - 나. 2학년 2학기 복학생 : 소속 대학 교학과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본인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작성하여 신청한다.(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단, 소속 모집단위에 지원가능한 전공이 4개 미만일 경우에는 4지망 미만이 될 수 있다.

교무처

불교생태학의 오늘과 내일

1. 세계생태학의 동향과 전망
2. 불교생태학의 현 주소
3. 불교생태학의 필요성과 가능성
4. 불교생태학의 발전적 추진 방향

을 초부터 홍기삼 총장이 본교를 '불교생태학'의 총본산으로 특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표방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연구와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첫 출발점으로 지난 2일 불교문화연구원에서 '불교생태학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학술면에서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4회에 걸쳐 기획, 연재해 불교생태학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유기적관계 바탕한 실천방안 제시해야

생태계 위기나 환경문제는 인간 욕망의 극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 만큼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환경문제가 총체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라고 해도 결국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환경문제는 종교문화로 바뀔 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생태불교의 가능성과 필요성

생태불교의 가능성은 불교의 가르침이 보다 현실적인 문제와 연계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생태문제를 종교문화적으로 이해하여 불교의 수행을 생태적 해결방안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인과적 고리가 끊어진 절대자유인 열반만을 추구하는 교리적 불교에서, 자신이 모든 존재와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실천적 생태불교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극락정토의 현실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극락이 사후에 가야할 곳을 알려주는 타방정토 신앙뿐만 아니라, 현생에서 모든 존재들 사이의 관계가 생태적으로 원만하고 조화롭게 회복된 공간이라는 점을 더 많이 강조해야 할 것이다.

생태불교의 무차별적 윤리

이렇게 환경의 파괴가 인간중심주의 가치관의 산물임에 틀림이 없다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불교의 연기관은 세계와 내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중생과 나는 서로 뗄 수 없는 자타불이의 관계성을 알게 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가 나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지혜이며 그것의 실천이 자비다. 때문에 불교의 생태윤리는 생물중심적 윤리를 넘어 생태중심적 윤리라고 말할 수 있

다. 즉 모든 개개의 존재는 존재 전체의 일부로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에 생태 중심적 윤리공동체는 바로 자연 전체이고 존재 전체와 일치하고 동일한 것이다.

이 자비의 생태윤리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야기된 지구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생명체들이 공존 공생해야 하는 21세기의 시대적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할 종교적 윤리라고 할 수 있다.

'환경보살'이 가야할 길

보살의 수행을 생태불교적으로 살펴보자. 인간 욕망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기술문명이 미래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으며, 생태계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함께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과 연기론적인 관계성의 회복을 통해, 그것들과 유기체적으로 일치하는 삶을 지향하는 환경보살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보시다.

또한 자신과 모든 존재가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고, 이 대전제 앞에서 자신을 극소화시키는 삶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계다.

이를 통해 모든 존재들과 생태적으로 원만한 관계성을 회복하여 평화로운 삶의 환경을 유지하게 된다. 이를 생태불교적인 선정(禪定)이라 한다. 따라서 선정은 인과적 시간성으로부터의 자유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과 생태적인 관계성이 회복된 공간까지 의미하여야 한다. 이 공간을 극락정토라고 한다.

환경보살은 바로 이 극락을 완성하려는 커다란 원(願)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존재이다. 이와 같이 생태불교는 모든 존재가 나와 뗄 수 없는 관계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석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

이혜은 교수의 국제분쟁이야기 (4)



남부아시아의 민족·종교분쟁

세계 10대 인구대국 중에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3개국이 위치하고 있는 남부아시아는 이 세 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인구 수 만큼이나 민족·언어·종교에서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은 인더스문명의 근원지였으나, 기원전 3천 500년경에 아리아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드라비다족과 그들의 언어는 남부 인도로 밀려나게 되어 언어와 민족에 따른 거주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카스트제도도 성립됐고, 브라만교와 인도의 토착신앙을 기초로 이루어져 인도문화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 힌두교가 발생했다. 또 기원전 5세기부터 시작된 카스트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이나교와 세계종교로 발달된 불교가 있으며, 남아시아에서 11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어진 이슬람교가 남부아시아의 주요 종교로 등장했다. 이에 덧붙여 16세기 편잡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시크교가 있다.

영국의 식민지배 하에서도 민족·언어·종교적으로 복잡한 다문화 사회구조를 형성했던 남부아시아는 독립할 당시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중심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독립했다. 이는 종교에 따른 인구 대이동을 일어나게 했으며, 서로간의 불신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곧 카슈미르지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미국과 소련의 양대 세력으로 나뉘어졌던 냉전체제 하에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인도와 파키스탄의 입장차이는 다시 한번 양국 간의 전쟁을 유발시켰다. 두 번째 전쟁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사이의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으나, 동·서로 나뉘어 독립되었던 파키스탄은 지역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내전이 일어났고 이는 결국 세 번째 인도·파키스탄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인도의 지원 하에 71년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로 탄생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양국 간에는 표면적 협조가 이뤄졌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카슈미르지역에 대해 공동대처를 함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시크교도들의 투쟁이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간의 분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양국 간에는 97년 평화원칙에 합의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종교문제는 민족적 갈등을 내재하고 있어 언제 다시 분쟁에 휩싸일지 모르는 관계이다.

이러한 분쟁이외에도 세계 각 지역에는 국내분쟁, 국제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새롭게 대두되어진 갈등처럼 보이기도하나, 오랫동안 축적되어진 여러 가지에 의한 갈등이 어떤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눈에 나타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분쟁이 종식될 것 같아 보이던 곳에서 그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갈등이 이미 파생되고 있음을 곧 알게된다. 이는 그 원인이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국제사회의 분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러나 축소하여 개개인을 한 국가로 본다면 문제해결에 좀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 싶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더불어 살아야한다. 민족·종교·언어가 달라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남을 좀 더 배려하는 마음, 나 아닌 남을 위한 사고를 지니고 자신을 전체 속의 한 개체로 바라본다면, 국제사회의 분쟁도 쉽게 해결되어지며 분쟁없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강정구 교수 강연회 - '반미반전과 민족공조'

“반미반전 실천은 생존의 문제”

“우리로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미국에 의해 결정돼 왔습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7일 서강대에서 열린 '반미반전과 민족공조' 강연회에서 본교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가 던진 물음이다.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와 서강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주최한 강연회는 이라크 전 이후 더욱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신패권주의 세계지배전략

강 교수는 “9·11은 전쟁우선주의 정책을 곧바로 실현시킬 필요의 조건을 마련한 촉진요인이자 확대요인”이라고 지적한다.

9.11은 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이지만, 그것으로 아프가니스탄 침공, 필리핀 등지의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의 비극을 결코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 강 교수는 “세계 평화에 위기를 가져온 미국의 신패권주의 세계 지배전략은 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돼 왔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북한 먼저 재래식 무기 감축론’이다. 부시정부는 국방예산을 2천800억에서 3

천790억 달러로 증액했고, 이는 한해 군사 예산이 13.6억 달러인 이북보다 무려 300배나 많은 액수다. 강 교수는 “북의 재래식 무기를 먼저 감축하라는 요구는 마치 입은 모든 옷을 벗어 무방비가 되려는 일방주의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한다.

북한핵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리영희 교수의 주장대로 ‘북한핵문제’라는 용어부터 ‘미국의 북미 제네바합의 위배문제’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쟁위기의 해결책

사실, 이 문제는 북의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는 ‘북미불가침조약’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의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의 체결은 꺼리고 있다.

이에 강 교수가 제안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6+2합의’에 의한 장기포괄적 해결안이다. 남북,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5개국이 ‘미국의 한반도평화보장 공동선언’을 내놓고, ‘조약’ 수준은 아니더라도 ‘북미불가침협정’을 맺는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민족공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



점이다. ‘민족공조’는 남북이 중심이 돼 서로 협력해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관계다. 그동안 남한은 북한에 대조적으로 한미공조 우선주의에 놀려 진정한 민족공조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 강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한미공조는 예측관계에 가까웠다”며 “맹목적 숭미가 주류를 이뤄왔던 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합리적 비판주의마저 매도당했었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또한 “국내 ‘주류 정치세력’과 ‘주류 언론’의 전쟁 부추기기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전쟁불감증도 문제”라고 꼬집는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아직도 전쟁타령이냐’던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는 이제 ‘반미반전’을 중심 화두로 인식하고 있다. “실천하자.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가자. 반전시위에 배지를 달고 참가하자.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생존의 문제”라는 강정구 교수. 한반도 전쟁위기에든 분명히 변화의 여지는 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동북아 5개국
'미 한반도평화보장
공동선언'을 내놓고
'북미불가침협정'
맺어야

산업기술환경대학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3기 건축·부동산 리모델링 최고 전문가 과정

www.brpp.com

■ 과정 특징

- 사업의 기획, 시공 및 자금조달에 이르는 포괄적인 과정으로 일반인 및 업계 종사자 모두 수강 가능
- 현장탐방 등 체험학습과 연계한 실질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 자치회 활동의 지원과 기 졸업생 그룹과의 연계를 통한 리모델링 업계의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 마련

■ 과정 개요

- 교육일시 : 2003년 9월 1일(월) ~ 12월 3일(수)까지 14주 시행
※ 매주 월, 수요일 오후 6시 40분 ~ 7시 50분(1교시), 8시 ~ 9시 10분(2교시)
- 주 최 : 동국대학교 산업기술환경대학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후 원 : (사)한국리모델링협회
- 교육대상 : 건설·설계·엔지니어링·자재·부동산·금융업계 임직원 및 관심 있는 분
- 교육장소 : 동국대학교 산업기술환경대학원
- 교육인원 : 50명(선착순 모집)

- 교 육 비 : 1인당 245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3년 7월 7일(월) ~ 7월 25일(금)

■ 교육이수 특전

- 자치회 활동 지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동국대학교 명의 이수증과 인증서 수여
- 본 과정 수료자는 동국대학교 산업기술환경대학원 입학시 장학금 혜택 및 특별우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행한 리모델링 관련 연구자료 제공
- (사)한국리모델링협회 발행 협회지 무상 제공
- (사)한국리모델링협회 회원사가 등록할 경우 교육비 5% 할인

■ 문의 및 접수처

- 동국대학교 산업기술환경대학원
TEL (02) 2260-3604 FAX (02) 2260-3602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
TEL (02) 3441-0815 FAX (02) 3441-0808

소나기 2003 대동제 이렇게 만들자



△동악 곳곳에 풍악을 울리자!
 △1학년 인데도 우리학교 축제 재미없다고 소문났어요!
 △동국대 대동제 파이팅!
 △으랏차차 우리들만의 대동제를 만들자!
 △우리 모두의 기억에 남을만한 대동제가 되길 빌겠습니다.
 △맘껏 즐기세!
 △축제가 끝난 후 청소는 필수
 △열심히 공부한 당신, 축제를 즐겨라.
 △와줘!
 △신나는 대동제 불타는 그날.
 △학생들의 참여가 없다면 대동제도 없다.
 △테마가 반미·반전인 만큼 美쳐버리자.
 △우리 다함께 Peacetival을.
 △대동제에 살고 대동제에 죽는다.
 △비가와도 눈이와도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쭈우욱~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자.
 △정지현 불러주세요~
 △축제가다운 축제! 너무 많은 주접 보기 안 좋아요!
 △모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동제를 만들자!
 △휴강은 필수!
 △우리도 가수 좀 부르자!
 △일단 비 안 오기를 기원하자!
 △정산대 학림관 옆 벤치에서 주접 여자가 많이 오세요.
 △'축제' 같이 보이도록 합시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시위현장에 다녀와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시위가 벌어진다. 이 시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다. 위안부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군 위안소로 연행돼 강제로 성폭행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위안부 문제는 종적을 감췄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기 시작했다. 위안부 문제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위현장에는 고작 할머니 네 분과 시민 단체에서 나온 몇몇의 사람들뿐이었다. 시위현장은 너무나 초라했다.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였다. 시위는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끝이 났다.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엔 항상 대학생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자각하고 시위에 동참해야 한다. 아마 그곳에 가서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위안부 문제의 빠른 해결과 그 노력의 중심에 우리 대학생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지원(사과대1)

문제창작학과 주최 새내기백일장 장원

어머니 이젠 제 가방에서 나오세요

어개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어머니, 이젠 제 가방에서 나오세요

왜 저를 울게 하세요, 이 손으로 밀쳐내버리라니요...그를

늘 거기 교과서가 자리잡은 그 나머지
 몸을 웅크린 채, 당신
 내 꿈이 누울자리따윈 주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만 제 가방에서 나오세요
 제 어깨가 무너질지라도, 저의 세상을 담을꺼예요
 그가 더 이상 서성이지 않게

기억나세요
 당신과 교과서가 손을 맞잡은
 그 안, 서성이던 시.

안은비(문과대1)

지상논쟁 학과제 회귀, 무엇이 문제인가

학과제로의 변경 학교측의 일방적 결정이 문제다

우리 학교도 학부제 변경에 함께 하려고 한다는 학교 정책을 환영한다. 하지만 학교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을 방치하고, 구성원들에게 학부제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함께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등의 학교의 일방성에 반대한다. 수시로 변하는 국가교육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과감하고도 치밀하게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시장논리에 학교를 맡기지 않겠다고 단언하셨던 총장님의 결단을 믿는다..

2004년 모집요강이 발표됐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과제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에서 또 다시 학교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실망으로 뒤바뀌고 말았다. 무엇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측에 또 한번 실망에 빠지게 하는지 이야기하겠다. 총장님께서 기초학문의 붕괴와 교육의 질 저하를 꼬집으며 부임하자마자 각 단과대별로 학부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총장선거 때부터 총장님께서 공약에서 이야기해오신 학부제 전면 재검토를 시작했다는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학생들은 각 단과대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이 학과제로의 전환이었고, 총장님이 단과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이야기를 누차 하였기에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모집요강에도 공개됐듯이 사과대, 경영대(주·야), 불교대, 생자대, 정산대는 학부체제로 남게 되었다. 전공이 수 120학점 체계이므로 단번에 140학점체제로 전환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실제 과 체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 큰 문제는 없다.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과체제로 전환한 이후 얼마든지 전공이수학점을 높여 나가면서 교육의 질적 도약을 꾀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전공이수학점을 급격히 늘리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학과제로 전환하면 '비인기학과'의 경우 정원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는 이유를 강조했다. 바로 이 점이 학부제의 큰 폐해였다.

학부제로 바뀐 후, 인기학과만을 바라보고 온 학생들이 그 학과로 몰리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 여하튼 이러한 이유로 학교는 학과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단과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단과대 구성원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공개하지도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전공이수학점을 높이는 데에 어려움이 많기 때

문에 단시일 내에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 맞다. 어떻게 떨어진 교육의 질을 높일지 시간을 두고 교수님과 학생, 학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 커리큘럼도 개편하고, 교수님도 더 모셔오고, 현 학사제도도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동안 학부제로 인해 이렇게 문제가 쌓여올 정도로 학교는 교육을 방치하고 불교병원으로 대표되는 '외형 부풀리기'에 힘써왔던 것이다.

학부제는 실패한 교육정책이다. 국고보조금을 더 때내겠다는 이유로 우리 학교는 96년 가장 앞서 학부제를 도입한 이래 얼마나 학교가 황폐화되었는가.

전공 교육은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수준이 떨어졌다. 비인기학과가 생겨나고 폐과가 생기기 직전이다. 학생들의 공동체 문화는 붕괴됐다. 이미 학부제 포기를 선언한 학교가 늘고 있고, 현재 그 흐름은 대세가 돼가고 있다. 서울대는 국가지원비의 BK21지원금 50%를 삭감하겠다는 교육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학부제 철회 방침을 들고 나갔고, 연세대도 2005년부터 학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학교도 학부제 변경에 함께 하려고 한다는 학교 정책을 환영한다. 하지만 학교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을 방치하고, 구성원들에게 학부제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함께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등의 학교의 일방성에 반대한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학부제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쓰여져야 한다. 또 다시 병원으로 유용되거나 외형을 부풀리는데 쓰여져 교육이 제일이 아닌, 학교 감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수시로 변하는 국가교육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과감하고도 치밀하게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시장논리에 학교를 맡기지 않겠다고 단언하셨던 총장님의 결단을 믿는다.

오 선 임
 총학생회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국교4

본지는 지난 5일자 지면에 실린 홍윤기 교수의 '학과제 회귀, 문제 있다'는 논쟁 제언 글을 시작으로 지상논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과제 회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논쟁을 이끌어가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는 학내 구성원 모두의 글을 환영한다. 단 주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신공격·비방이 담긴 글은 실지 않도록 한다. 편집자

'문제는 전공교육의 질 향상이다' 글에 대한 재반론 대학교육 질 향상의 걸림돌일 수 있다

학과제를 문제삼은 필자에 대한 문과대 임호일 학생님의 반박문을 잘 읽었다. 선생께서 필자가 "호도하고 왜곡"했다고 꾸짖으신 철학과 교수 3인의 일관된 의견은 이랬다. 즉 "우리는 학과제에 원칙적 반감을 없다. 그러나 만약 진정한 학부제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학부제를 찬성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이야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학과제에 찬성하는 말인가 아닌가.

학장님이 이 의견을 학과제 찬성 쪽으로 조금하게 재단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선생께서 그토록 강조한 전공교육의 질을 향상할 방안은 한마디 언급도 없다.

이런 입씨름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 대신 필자는 학과제·학부제 논의의 실질적 핵심에 대해 몇 가지 소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결정된 학과제의 핵심은 학과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자 부족에 시달려온 비인기 학과가 입학 단계부터 학과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발상은 변화된 교육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연간 3차에 걸쳐 실시되는 대학 입시는 지원자의 수시 이동을 보장한다. 이 때문에 등록철마다 상위권 대학으로의 대거 이동이 있고, 이로 인해 대학마다 3배수 이상의 예비 합격자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2003년 현재 대학 신입생 전국 정원이 지원자 수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이라고 정월 수급에 안심할 상태는 아니다. 비인기 학과일수록 경우에 따라 합격자 수, 더 나쁘게는 학과 응시자 총수가 모든 이동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은 커진다.

더 큰 문제는 입학 후 학과 교육 과정의 수확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수능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행 대학 입시 제도와 대학간 학벌 및 서열 관계가 철폐되지 않는 현재의 대학 상황에서 학과제가 실시될 경우, 같은 대학 안에서도 인기·비인기 학과간 커트라인 격차가 커지면서, 대학 전체의 평균 커트라인 수준 역시 하향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상황은 전공 교육의 질을 저고하는 데 원천적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대학에서 제공할 전공 교육의 적절성 문제이다. 오늘날 기존의 학과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새로운 전문 분야가 출현하면서, 이런 분야들 사이의 복합·융합이 일어나고, 학문적인 연구와 교육이 시급하게 필요한 새로운 문제 영역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19세기 국가주의 발상에서 짜여진 학과 제도가 얼마만큼 이 새로운 지식 상황에 탄력적일 수 있겠는가. 학과의 벽을 넘어 인접학과의 유기적 연구는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또 교수 구성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 사이의 불균형으로 학생들의 전공 교육에 심대한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결코 사소하지 않은 학과제의 문제점으로 당장 거론할 수 있는 것이 20가지 이상 되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이쯤 하겠다. 그러나 일단 학과제가 굳어져 교과운영과 교수 소속이 모두 학과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이런 문제 의식이 그 출발 단계에서부터 배제되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 비단 필자 혼자만의 기우일까. 학과제가 학과의 무덤을 파는 일이 아닌지 다 함께 생각해 볼 일이다.

홍 윤 기
철학과 교수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지상논쟁, 여론수렴의 장 펼쳐 학내 문화소식 담아내길

지나호에서 주목할만한 기사는 아무래도 '지상논쟁'인 것 같다. 1365호에 실린 홍윤기 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한 임호일 교수의 반론을 실었다. 동대신문이 학내 여론을 수렴하는 장이 된다는 것, 이로써 여론 생산과 유통을 주도하는 신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다만 지상 토론이 격화되어, 여론의 양극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특성화 사업, 구성원 합의가 필요하다'는 보도가 눈에 띄었다. "불교생태학"을 특성화 분야로 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과 특성화 분야 선정과정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주문하고 있다. 8면의 문화 기사들은 편집이 산만하다는 느낌이다. 학내의 크고 작은 문화 소식을 담았으면 좋겠다. 교수, 교직원, 학생 동아리 등 각 집단의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동악에서 벌어지는데, 한 주일간 학내의 문화 활동 안내 및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동국인 전체를 하나의 문화공동체 성원으로 묶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6면의 '호주제 반대 다함께 외치자' '허스키 보이스, 그 처절함의 미학' 두 원고는 독자 기고인지, 신문사의 요청에 의한 칼럼인지 분간이 안 간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나의주장'과 유사한 것이라면 다른 면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무거운 학내 이슈를 다루는 여론 면에 위치시킴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소외된다는 느낌이다.

구 승 회 (윤리문화학과 교수)

동악광장 축하합니다

△연속아 생일 축하해! 기획단장 하느라 수고가 많다. -선연
 △연경아 5월 13일 생일 축하한다. -우람
 △경옥아~ 생일 축하해. 항상 행복 해라.
 △영우아 생일날 예비군 훈련 가는 것 축하해. -누림이
 △5월 29일 음생 1학기 정기 공연 축하해요.
 △혜영아~ 남자친구랑 200일 된 것 축하해. 앞으로도 계속 예쁜 사랑해라. -삽
 △지원아 성년이 된걸 축하해 -J.W
 △박성범의 임대 축하 102보충대로 끝 최전방 가겠다.
 △98학번 건축과 최우영의 시험 주기와 사회 100점을 축하합니다.

△5·20 이상미~! 생일 축하해, △경영대 테니스 잘 쳐라. 그리고 혼불 우승은 내 것이다.
 △5월 25일 경영학부 03학번 이선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26일은 고진환 생일입니다. △부야장님! 613,615 실천 단장되신 것 축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진아 수고했어요

열심히 합니다
 △정원아 경제공부 열심히 해 -옥
 △공과대 축제 준비하시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우람
 △야총 풍물패 광기! 광란! 신명! 마당! 열심히 연습해서 대동제 때 멋진 공연 보여주세요. 화이팅! -랑

△유지현. 생물수업 지각 좀 하지 말고 열심히 해
 △경행 패인 패밀리(H모군, K모양, P모군) PC방 그만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자!
 △총학생회 집행부들 대동제, 5월 축전, 실천단, 6·13부터 6·15일까지 열심히 합시다. -진
 △들뜰! 대동제 연습 열심히 합시다. -빠

그리고...
 △학교가 참 좋네요~ 특히 중앙도서관. 우리학교 도서관이런 날마다 공부만 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고대 서창 O O미녀2총사
 △도서관 휴대폰 중계기 답시다. 너너만 안 터져서 속 터져!!
 △유나, 선희, 자연 후배 밥 사줘서 고마워요. -경영학과 04

금주의 식단

| | 동국관 | 상록원 | 교직원 |
|----------|--|---|--|
| 월 (5/19) | 쇠고기국밥 (1500) 닭꼬치구이 (1500) 콩나물비빔밥 (1500) | 쇠고기담면탕 (1300) 오징어덮밥 (1500) 불고기백반 (1500) | 민장찌개 (3000) 만두전골 (3200) 닭꼬치구이 (3200) |
| 화 (5/20) | 반계탕 (2000) 제육볶음 (1500) 피자돈가스 (1500) | 반계탕 (2000) 간지장 (1500) 나물비빔밥 (1500) | 민장찌개 (3000) 김치보쌈전골 (3200) 참치회덮밥 (3000) |
| 수 (5/21) | 부대찌개 (1500) 미트볼케찹살 (1500) 공중떡볶이백반 (1500) | 콩나물국밥 (1500) 치킨볶음밥 (1500) 두부김치 (1500) | 민장찌개 (3000) 창파육개장 (3200) 양장피자 (3500) |
| 목 (5/22) | 사골곰탕 (1500) 오징어김치볶음밥 (1500) 닭조림 (1500) | 짜꾸미제육볶음 (1800) 미트볼탕수 (1500) 어묵우동 (1500) | 민장찌개 (3000) 날치알살밥 (3200) 더덕구이 (3500) |
| 금 (5/23) | 감자탕 (1500) 잡채밥 (1500) 쇠고기무국백반 (1500) | 짬뽕국밥 (1500) 모듬볶음밥 (1500) 족발 (1300) | 민장찌개 (3000) 수육쌈밥 (3500) 황태구이 (3500) |

문화인 릴레이 대담

- ① 민족문화 - 류기형(민족예술단 우금치 대표)
- ② 대중문화 - 전유성(개그맨 겸 연출자)
- ③ 사회문화 - 황철민(다큐멘터리 감독)



류 기형
민족예술단 우금치 대표, 연출가

(사)한국민족운동연합회 이사
93 대전 EXPO 개막식 길놀이 연출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대전광역시 대표 총연출
2000년 대전동구문화상 수상
2001년 대전광역시장상 수상
마당극 '두지리 칠석놀이' '꼭땃황혼' '고대리시' 외 20여편 작/연출

우리의 공연문화는 예로부터 담겨 있는 서양식 공연장과 달리 열린 마당에서 이루어졌다. 공연 주제와 관객이 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부분 현대극으로 치우쳐진 요즘의 연극계에서 마당극 공연장은커녕 마당극 자체도 찾아보기 어렵다.

14년 동안 우리에 마당에 민중의 혼을 불어 넣어진 민족예술단 '우금치'가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우금치 류기형 대표와 본교 극예술연구회 회장 빙진영(윤리문화학2) 양, 불교대 풍물패 '이관사관' 패장 정필수(불교대2) 군과 함께 민족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빙진영(이하 빙) = 우선 독특한 극단 이름의 유래부터 듣고 싶어요.



빙진영 (윤리문화2)

전통극 무대에 올리는 것 관객참여에 대한 부담감 커

류기형(이하 류) = 우금치 라는 말은 '소만한 금이 파묻혀 있던 고개, 소가 넘지 못하는 고개' 라는 뜻을 가진 우금치 고개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금치 고개에서 벌어진 공주 전투에서 우리 동학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다가 끝내 패배하고 말았지요. 때문에 우금치 지역에는 동학군의 대부분이었던 농민의 한이 서려있어요.

초창기에는 농민 문제를 주로 다뤘기 때문에 우금치 지역에 깃들어진 농민 정신과 저희 공연과의 기초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했어요. 더불어 '지역 극단'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명을 이름으로 정했지요.

정필수(이하 정) = 꽤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하는데 우금치가 그동안 걸어온 과정 좀 이야기 해주세요.

류 = 지금의 우금치라는 이름은 갖고 공연을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예요. 1985년에 극단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 때는 풍물패 공연이 전부였죠.

80년대 농촌은 메달과 있었어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처음

요즘의 문화계는 상업성 위주의 대중문화로 점철됐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생산돼 다시 거대한 자본을 만들어내는 산업적 문화만이 주류로 자리잡을 수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문화적 소신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보이지 않게 우리 문화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문화인과 본교 학생들이 만나 우리 문화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편집자

“전통 지키되 낯은 옷 벗어야 대중과 호흡하는 민족문화 될 것”

에는 일반적으로 공연을 했지만 회를 거듭하다보니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농민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으려면 공연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풍물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농민들의 진짜 혼을 배울 수 있었지요. 우금치라는 이름을 가진 후부터는 마당극 위주로 공연을 했어요.

정 = 저도 학내에서 풍물공연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관심이 절실한 실정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장르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거든요. 한번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당극을 시도했다가 낭패를 봤지요.(웃음) 물론 연습이 부족하긴 했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류 = 마당극이라는 장르가 많은 장르는 혼합된 것이라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단원들은 역할에 상관없이 풍물, 연기, 탈춤 등 민속극과 관련된 것에서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저도 연출하면서 동시에 배우 역할을 하거든요.

빙 = 요즘 대학생들이 민족문화에 관심을 덜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연극을 하고 있지만 문화 자체가 외국을 따라가고 있으니 무대에 외국극이나 현대극을 올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전통극을 올리면 아무래도 관객 참여에 대한 부담이 크죠. 선생님이 마당극을 시작할 때는 대학생들의 관심이 많았나요?

류 = 당시에는 대학생이 상당한 지식인으로 취급되던 시대였어요. 집회 현장의 한 가운데에는 언제나 대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무조건 손을 올리는 집회가 아니라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문화 공연에 담아보자는 생각이 들어 집회 현장에서 마당극을 자주 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연 주제가 대학생이었지요. 본격적으로 농촌에서 풍물과 공연을 했을 때도 단원의 대다수가 대학생이었어요.

정 = 우금치의 공연은 창작극을 무대에 올려 메시지 전달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제도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게 다른 극단과의 차별성 아닌가요?

류 = 맞아요. 전 아무리 전통극을 한다해도 주제는 요즘의 현실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농민·환경오염·노인 문제 등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노력했어요.

흥이나 신명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도 정말 중요해요. 고전극을 각색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최대한 살리려고 하지요. 관객은 어차피 '요즘 사람'이니까요.

빙 = 요즘 연극들은 관객에 대한 배려보다 작가나 연출자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뭘 말하려는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류 = 관객이 연극을 보면서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연극은 실패한 거예요.

주제는 다 감춰놓고 작가나 연출자만 만족하는 공연은 의미가 없죠.

서양식의 극장 공연은 관객석을 벽이라고 생각해요. 관객과의 소통이 애초부터 단절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극장 공연을 하더라도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비워두려고 노력해요.

정 = 대학 내에서는 관객 참여 문제도 중요하지만 공연 주제가 부족할 게 더 시급한 문제예요. 전통문화, 민족문화라는 말만 들어도 고루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니까요. 저희 소모임 같은 경우에도 신입생 유치가 무척 어려워요.

류 = 민족문화와 관련한 동아리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기본을 충실하는 거예요. 풍물 공연을 할 때에도 사물놀이로 건너뛴 것이 아니라 풍물이 어디서 시작한 것인지, 그 정신은 어떠한지 등을 공부한 다음에 악기를

들어야해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풍물을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길놀이 형태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사물놀이의 경우 전문가 소리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어설프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민족문화만 남고 오래된 것을 다룬다는 뜻이 아니라 대중과 호흡하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빙 = 형식을 바꾼다해도 내용 자체가 낯선 것이 사실이었어요. 관객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류 = 그렇지 않아요. 2001년 수능가를 각색해 연출했던 어린이 창극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은 분명 관소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어린이 투표단에게 1위로 뽑혔지요. 즉 형식을 얼마나 어린이의 취향에 맞추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정 = 학내 공연, 나아가 우리 공연계 전체에서 민족문화가 자리잡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에게 조언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구요.



정필수 (불교대2)

공연주제 부족도 심각 전통이라면 모두 기피

류 = 전통문화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이 선행돼야 해요. 음악, 춤, 연극 등 장르를 막론하고 모두 공부해야 근본 정신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하루 일과가 그것들에 대한 공부이거든요. 특히 관소리 공부에 주력하고 있어요.

공연이란 정서적인 감동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관건인데 민족문화를 다루고자 하는 연극이라면 그 형성기반이 전통이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전통이라는 기반을 토대로 어떻게 현대인의 정서와 결합시키느냐가 중요해요.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하면서 대중과 함께하는 공연문화를 만들기 위해 저도,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야 하겠지요.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문화단신

2003 춘천마임축제

'2003 춘천마임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춘천시내 공연장 및 예술마당과 고슴도치 섬에서 열린다.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현대 마임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마임 발전을 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추천할만한 공연으로는 네덜란드 '드라더스' 팀의 소리 마임과 '도깨비난장'의 밤샘공연이 있다.

평소 마임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부담없이 마임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의 (033) 242-0621

'지구를 지켜라' 모스크바 영화제 출품

영화 '지구를 지켜라'가 오는 6월 20일 개막되는 제25회 모스크바 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SF코미컬 지구를 지켜라라는 기발한 상상력과 짜임새 있는 연출로 영화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개봉했으나 흥행성 부족으로 인해 조기 종영한 작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몇몇 영화관에서 재개봉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다.

한편 모스크바 영화제에 출품했던 우리나라 영화로는 '아제아제 바리아제' '살어리랏다' 등이 있다.

본교 특성 살린 열린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개교 97주년기념 특별전' 열려 ... 활성화 위한 지속적 노력 뒷받침돼야



초등학교 때 소풍으로 갔던 엄청난 규모의 국립박물관. 누구나 그 곳의 진귀한 국보와 보물 등에 감탄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렸을 적 소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특정지역에만 있어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교 박물관(관장=장충식·미술사학)이 개교 97주년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층 제2전시실에서 진행되는 '개교 97주년기념 특별전'은 학내에서 국보·보물급 유물을 손쉽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 미공개 됐던 '청화백자 송죽문호' '정조대왕 어필 파초도·국화도' '금산 장흥규명 인화문 분청사기' 등과 불굴유물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국보 제176호인 '청화백자송죽문호'는 송죽의 배치와 청화 처리의 뛰어난 솜씨로 조선백

자의 진수를 보여준다. 보물로 지정된 '정조대왕 어필 파초도·국화도'는 당시 화가들의 작품과는 달리 꾸밈이나 과장이 없이 단순하면서도 균형적인 배치를 가져 관람객들이 조선시대 회화의 새로운 면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귀면와' '청동탄생불' 등 신라·고려시대의 작품들도 전시돼 우리나라 유물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장충식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소장유물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이며 앞으로는 제2전시실을 상설 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보비흡과 본교 박물관만의 차별성이 부족해 일어나는 관람객 부족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족과 큐레이터 부족도 아쉬웠다.

그동안 한 곳에서 숨죽이며 관람객이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본교 박물관, 본교 박물관

문화인이 말하는 나의 하루



“아날로그적 글쓰기 삶과 비슷”

손 홍규
소설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미네르바의 올빼미만 황혼녘에 날개를 퍼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밤이 이속해서야 자신만의 고유한 활동에 몰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주로 밤부터 새벽까지 글쓰기에 시간을 할애한다.

낮 동안은 다른 학생과 다르없이 강의를 듣고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한다. 하지만 생활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 쓰고자 하는 소설의 소재를 찾아 직접 취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비록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웬만한 자료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인터넷만 믿고 있다는 낭패이기 십상이다. 확인되지 않거나 잘못된 자료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강의가 없는 날 혹은 주말을 이용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닌다.

습작시절에는 모든 작가들이 나의 스승이었다. 하지만 일단 문단에 등단하고 나면 그들이 모두 나의 경쟁자인 셈이다. 말하자면 문단이라는 곳 역시 하나의 세계이며, 치열한 작가정신을 지닌 사람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는 원칙이 있다. 하루에 원고지 삼십 장은 꼭 써야 그날을 마무리 짓는다. 물론 날마다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 할 수는 없다.

때로는 피곤해서 때로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때문에 종종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말이면 더욱 바쁘다. 그동안 못 채운 양을 메우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원고지 삼십 장, 우습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글쓰기가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원고지를 퍼 놓은 채 내리 서너 시간을 한 줄도 못 쓴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거나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소설가다. 죽으나 사나 소설은 써야 한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원고지에 글을 쓴다. 비유하자면 핸드폰이 아닌 호출기를 갖고 다니는 셈이다. 원고지에 글을 쓰는 게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컴퓨터에 직접 쓰는 것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내게 작가란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에 가까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속도의 시대를 거스르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 땀 한 땀 비눈질을 하듯 원고지 한 칸 한 칸을 채우고 싶다면 글쓰기와 삶의 유사성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

삶이 불확실하듯 글쓰기 역시 불확실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견디고 살아내듯 나 역시 그런 방식으로 글을 체험한다.

황혼이다. 나는 또 다시 원고지의 날개를 편다.

최유석 기자
kauri21@dongguk.edu



매체비평

광고 편

롯데리아

“짜집기식 광고 성의 아쉬워
예전의 참신한 모습 되찾길”



화면분할을 통해 지면번식의 광고를 선보이고 있는 롯데리아.

작년 여름, 사람들이 월드컵 광풍에서 점차 헤어 나오기 시작하던 때였다. 월드컵 4강진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일대 유행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니들이 게맛을 알아?’ 그제 고집있고 통명스러운 중노인 역할에 어울리는 줄로만 알았던 탤런트 신구를 일약 스타덤에 올리면서 크랩버거라는 상품을 확실히 인식시켰던 광고.

카피가 유행어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광고다. 다소 엉뚱하고 과장된 유머, 롯데리아 광고만의 재미가 확실히 완성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하는 듯 했다. 노후현의 칩버거도 재미있었고, 선우용녀와 김예경의 통구이 감자도 재밌었다. 단지 그동안 만들어졌던 롯데리아 광고만의 재미는 덜 했다.

점점 주연 모델들의 말에 의존하면서 모델에 의존하는 유머라는 느낌이 강했다. 그리고 나서 선보인 롯데리아의 새

로운 광고 불갑비 버거. 기대가 컸는지 크게 실망했다.

머릿 속에 남은 건 신문담과 흥분, 저게 통 뽕 소린지.

롯데리아 광고만이 주는 재미를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정말 신문담일 수밖에 없는 카피였다. 오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던 언제쯤 반전이 있을까하고 기다려보지만 반전을 기대할 때쯤 허무하게 끝나 버린다.

그리고 비주얼은 이게 어느 제품 광고인지 혼동될 지경이었다. 단 두 개의 씬으로 지루하게 이어가다가 뜬금 없이 화면이 둘로 분할되어 제품 사진이 노출된다.

어쩔지 익숙하다 싶더니 맥도날드가 자주 보여준던 화면이 아닌가.

인쇄광고에서 보던 구성 그대로 화면

분할을 해서 신한다는 것이 얼핏보기에는 간결하고 신선해 보이기도 한다. 제품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너무 성의 없어 보인다. 단조로운 화면 구성을 어떻게든 커버하려는 의도라면 보인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경쟁사의 광고와 차별화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맥도날드가 분할 화면을 사용했던 것은 빨간색과 노란색이라는 맥도날드만의 고유한 브랜드 컬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마치 맥도날드의 간판을, 메뉴판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선점된 경쟁사의 레이아웃을 따라갈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

그동안 참신한 재미를 주던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 저기서 익숙한 구성들을 따와서 그것을 한데 합쳐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융화되어 좋은 효과를 얻지는 못한다.

초등학교 자연시간에 배운대로 설탕을 물에 녹인다고 해서 그것이 풀이 되지는 못한다. 단지 달콤한 설탕물이 될 뿐이다. 설탕을 물에 녹일 것이 아니라 양봉을 해서 꿀을 얻어내려는 노력, 이번 롯데리아 불갑비버거 광고는 그 노력이 아쉬웠던 광고다.

그 노력이 없다면 앞으로도 롯데리아는 소비자들의 푸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게 통 뽕 소린지...

김태홍
서울대사극장

남북문화의 공통분모 아~ 아리랑

한민족이 부르는 아리랑에는 종교적 믿음 배어 있어 문화적 연결고리 삼아 이념초월한 축제 자리 만들어야

아리랑을 성가처럼 부르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실로 그 내력을 추적해 보면 아리랑이나 아라리(알라리)라는 단어가 신(神)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원래 한민족은 일월신을 경배했던 민족이었고, 그 신을 ‘한알님’이라 호칭하였다. 다시 말해 ‘하늘나라의 신’이란 뜻이다.

‘청산별곡’의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를 새겨보면 “살아 봤으면 좋을 것을 살아 봤으면 좋을 것을 머루랑 다래랑 따 먹고 청산에 살아봤으면 좋을 것을”이라고 하는 미래원망 증지형의 발원인 것이요, ‘알라리알라’는 오갈 곳 없는 극한 상황의 서민대중의 최후의 안식처로 가고 싶고, 신에게 귀의하고 싶어하는 민중의 의지와 소망이 엮여있다.

결국 “미래 언젠가 우리도 이같은 고해의 늪을 지나 알로 다시 태어날 지어다 태어날 지어다”라는 뜻으로 귀결된다.

유토피아로의 지향성은 해원을 통해 가능하다. 그 해원 풀이아말로

한국 무교나 천도교의 이상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남사고의 ‘갑을가’에 나오는 아리랑이나 ‘음천어투세가록’에 나오는 장편 부지 아리랑타령이나 매 한가지로 강력한 아리랑을 통한 주념적 발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 두 노래를 대조해 볼 때 ‘갑을가’에서는 아리랑을 ‘천불의 세계로 가는 정거장’ 곧, 재생 모티브로서의 세계로 묘사하고 있다.

‘부지 아리랑타령’은 열녀춘향 아리랑이라 할 수 있는 바, 열녀춘향을 잊지 말 것과 열녀춘향의 해원이야말로 천하해원이며 거기에서 역적놈(일본인)을 만나 망국강산이 된 민족, 또 우세를 당한 나의 해원도 같이 해달라는 비원이 서려 있는 것이다. 심지어 춘향낭군인 이몽룡까지 신격화되어 해원을 돕고 있다.

알로 향한 마음은 본향으로 향한 마음이다.

흔히 우리는 “미주알 고주알 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때의 알은 ‘근원’의 뜻이다.

오늘날 남북 제원군의 ‘공알바위’처럼 종교적 대상으로 신격화되기도 하였고, 자식을 못한 사람들이 지니는 ‘알부적’도 생겼으며, 마마귀신을 퇴치하는 ‘알라리랑’ 부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알이나 아라리는 구국의 민족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소리는 어떻게 보면 본향으로 향한 우리 모두의 노래일 수 있다. 아리랑은 제의적 공간에서 신을 부르던 소리에서 신과 국가와 남을 부르는 속으로 후대에 변신해 나갔다.

아리랑은 근대에 와서도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을 때 부르는 민족화합의 애국가로 승화되었다. 자연, 여러 장르 곧 연극, 영화, 무용 등 제반 예술에서 변신의 폭을 넓혀 갔다.

1926년 10월 1일, 백승필이 경영하던 단상사에서 개봉된 ‘아리랑’은 이 땅의 민중들에게 일대 충격을 안겨준 혁명적인 영화가 되었다. 그 주제는 항일민족정신에 있는데 알고 보면 민족신을 내세운 한민족의 저항의식 그것이었다.

고정욱의 ‘조선구전문학연구’에서 “아리랑 또는 아리랑 고개란 무슨 뜻이며 어떤 고개인가. 여러 전설들은 봉건 시대의 조선 인민의 고통이와 관련된 것인 설은 괴로운 세상이라 보기도 들기도 싫어 나는 귀머는 체 한다는 그러한 감정이 민요 ‘아리랑’의 기초로 되어 있다.

‘아리랑’의 시적 내용과 선율이 주권을 상실한 민족의 비애를 담고 있다는 견해를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결합시키고 있다. 즉 조선 민족

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남의 나라에 예속되어 있는 것은 통분한 일이라는 감정이 ‘아리랑’을 낳았다는 것이다.

근자에 한민족은 다시 아리랑을 통해 문화의 고리를 연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의 고리도 있어야 할 것이다.

아리랑은 운문의 세계에 속하지만 산문의 세계인 민족신화의 부활도 시급하다고 본다. 단군을 국조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그 의도야 어떻든 간에 남한보다 북한이 앞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 대화의 문은 전통 문화와 축제를 통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얽히고설킨 응어리와 한을 풀어 나갔던 곳은 다름 아닌 ‘동제’ 마당이었다.

그 곳에서 우리 모두 맺힌 한을 풀고 연결해 나가야 한다. 그 실마리를 푸는 길은 ‘대동국판’ 밖에 없다. 아리랑 축제, 그리고 국조 단군축제를 벌여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문화 축제마당을 만들자는 말이다.

아리랑은 민족신으로 향한 민중의 열원이요, 이상향으로 치 달고 싶어하는 남북한의 공통심이다. 남북한 한마당 축제인 아리랑 축제와 단군 축제야말로 이 시대 남북한 문화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며 정치, 경제 등 제반 문화의 연결고리도 응당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김선홍
중앙대 민족학과 교수

북측에서의 아리랑 “고저 아리랑만한 노래가 없습네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남은 심리도 못가서 발뽀난다.” 지난해 9월 진행된 ‘아리랑축전’에서 우리 민족의 음악인 아리랑이 평양시내 높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우리는 아리랑을 들으며 눈시울을 적시는 북측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북측에서는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상징한다. 때문에 남북문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말살시켰지만 남측의 지명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영천아리랑’ ‘밀양아리랑’ 등은 여전히 활발히 불리고 있다. 이는 아리랑은 국가와 이념을 떠나 세계에 퍼져있는 모든 한민족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서러있는 한민족의 노래 남측보다 활발한 연구

또한 남측에서는 주로 아리랑을 기쁘고 즐거울 때 부르는 것에 비해 북측에서는 아리랑을 슬프고 힘들 때 부른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북측에서 아리랑은 일본 강점기 시대에 억압당하고 탄압 받은 우리 민족의 한을 나타내는 노래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관련해 ‘한민족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 김연갑 씨는 “북측은 아리랑의 정신인 저항과 연대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남측보다 아리랑 본래의 정신이 좀 더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측에서는 남측보다 아리랑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70년대부터 본격적인 아리랑 연구가 진행돼 지금은 소설, 연극 등에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지난 1990년 ‘남북 단일타구팀’을 시작으로 남과 북이 함께 하는 국제 팀사에 항상 이용되고 있는 아리랑, 우리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는 아리랑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문화적 사명이 아닐까.

최우석 기자
kaur21@dongguk.edu

필름에 담은 민족의 혼

춘사 나운규 작 리메이크한 영화 ‘아리랑’ 남북 동시 개봉

줄거리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작농 가족의 이야기다. 시골 소작농의 아들인 영진은 경성제국대학을 다니다 3.1운동에 참가해 일제의 고문을 받고 정신병자가 된다.

한편 마을에는 일제와 결탁해 소작인들을 착취하는 악덕 지주 천가의 아들 기호는 집문서를 빌미로 영진의 여동생 영희를 노리지만 영희는 영진의 친구 현구를 사모한다. 그러던 어느 날 기호가 영희를 겁탈하려하고 이를 본 영진은 정신이 돌아온다.

1926년 제작된 나운규의 ‘아리랑’은 영화를 통한 저항의 몸짓이었다. 이를 리메이크한 2003년 ‘아리랑’이 남북 모두에게 민족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제작과 함께 남북 동시 개봉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측 문화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평양 시사회가 그 출발점이다.

그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화를 본 후 제작사 시오리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북한 평양국제영화회관과 개신문 영화관에서 무료 상



영되는 영화 ‘아리랑’.

“동시 개봉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은 공동된 민족정서 ‘아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제작사 한 관계자의 말처럼 아리랑은 끊어질 수 없는 남북의 문화적 공감대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은 한민족이라면 세대를 막론하고 1920년대 이야기에 웃고 울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lyone@dongguk.edu



메아리

사이버 ‘교복’

▲중고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 중 하나는 교복착용이다. 교복은 19세기 근대교육이 시작할 무렵 학생들을 단체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성 말살, 획일화 등 많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교복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탈선방지’라는 교복이 가진 거대한 힘 때문이다.

▲요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정보통신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온라인 계시관, 나아가 모든 민간영역 온라인 계시관까지 실명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불씨였다. 게다가 얼마 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직 검사를 비판한 네티즌이 최초로 실명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되는 인터넷 특성상 모방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판결을 내린 이유였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명목은 사이버 범죄 예방과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이다. 전자는 모든 네티즌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온라인 세계를 형성한 익명성을 없애고도 지금까지 활발한 온라인 토론이 벌어질 지도 의문이다.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익명성이기

때문이다.

▲교복은 학생들의 ‘돌출행동’을 막아 ‘압전한 모범생’으로 만드는 것에 일조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비행청소년은 있다. 다시 말해 교복은 탈선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온라인 세계가 또 하나의 생활공간이 된 요즘,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뽕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상황을 초래하지 모른다.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통금시간을 재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기에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통부의 주장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탈선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은 ‘교복’이 아니라 번거롭더라도 ‘대화’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하나 기자
selllyone@dongguk.edu